



QR코드를 통해
경상북도 의회소식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소식 2023 여름 제135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2023. 여름 제135호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경상북도 의회소식



경상북도
의회소식

ISSN 2733-5100



포토에세이

아름다운 비경 김천 무흘구곡 9곡 용추폭포

성주(1 ~ 4곡)와 김천(5 ~ 9곡)에 걸쳐 있는 길이 35km 계곡, 무흘구곡.
그중 9곡에 해당하는 용추폭포가 만들어 낸 장관이 아름답다.
암석의 사이 굴곡을 따라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고 있노라면
근심 걱정도 함께 떠나려가는 듯하다.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산24

Contents



마주 보다

- 04 인사말
- 08 위원회 활동
- 16 부의장 인터뷰
박용선 부의장
- 18 의원 인터뷰 part I
이춘우 의원
최태림 의원
윤승오 의원
이선희 의원
- 26 5분 자유발언



손잡다

- 34 의원 인터뷰 Part II
김일수 의원
김용현 의원
박규탁 의원
정경민 의원
- 42 도정질문
- 48 처리의안



같이 걷다

- 58 의원 인터뷰 Part III
노성환 의원
황재철 의원
권광택 의원
조용진 의원
- 66 의정 News
- 72 궁금해요, 이것!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청소년을 위한 경북도의회 Q&A
- 74 나드리 경북
여름 휴가, 여기 어때?!
울릉 관음도 & 오징어축제
- 77 독자 참여
숨은 그림 찾고, 색칠도 하고
경북을 함께 알아가요
- 우리 땅, 독도
- 78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현황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발행인 배한철
편집인 김종수 발행일 2023년 7월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실
전화 054-880-5144
기획 · 디자인 · 제작 동아에드컴



『경상북도 의회소식』 구독 신청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b.go.kr) 접속 후

상단메뉴 중 의회소식 → 의회간행물 → 의회소식지 '소식지 신청하기'
클릭 후 작성

구독 취소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실(054-880-5144)로 연락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은 여름이라는 열매가 연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도민 여러분들도 이 계절에 걸맞게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시대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됨으로써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어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과 같은 이행력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제12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정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작년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해 여름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를 동반하는 슈퍼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주변의 재난 취약 시설과 위험 지역을 미리 살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위군이 오는 7월 1일 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편입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생활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열정
같이



가치

뜨거운 태양에 온몸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우리의 열정처럼...

아 뜨거운 열정에 경상북도의회의 열정이 한 스푼 더해집니다.

개개인의 열정이 모여

더 나은 경북이 됩니다.

같이, 경북의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Happy Gyeongbuk



의회운영위원회

전라남도의회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구)는 지난 5월 25 ~ 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들 간의 간담회는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평가·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관 도입의 명분인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 향후 정례적 교류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시행 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방소멸 대책, 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고 동의하며,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해 17개 시·도 의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호남이 단합돼 대한민국 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영·호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라며, 타 시·도의 우수 사례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힘을 모아야 지방의회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39회 임시회 기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6건의 조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주요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데이터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북의 데이터산업 기반을 견고히 육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홍보와 함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구거(도랑), 회무(사무), 입회(참관), 납골(봉안) 등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99개의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행안부 권고에 따라 수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려운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개정하길” 주문했다. 아울러, “심사한 조례안이 도내 데이터산업 육성과 도민의 안전 확보 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성금 기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우리 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행사를 통해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는 행사로 최근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우리 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47일간 진행된다.

성금 납부 방법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 송금 또는 ARS 전화 기부,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신용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연말정산 시 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 세액공제('22년 기준, 20%~35%)도 가능하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이상기후에 따른 이른 무더위로 인하여 취약계층들은 생활고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무더위와 냉방 요금에 이중으로 고통받을 취약계층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겨울 전기료 인상으로 온 국민이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할 때 경북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문화환경위원회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6월 22일 도정책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 각 시군에 포진되어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이 경북관광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 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내외 관광객트렌드를 반영한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대표이사(경북문화재단)의 '경북의 문화관광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전상미 교수(국립안동대학교)의 '경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두 번째 발표가 이어졌다.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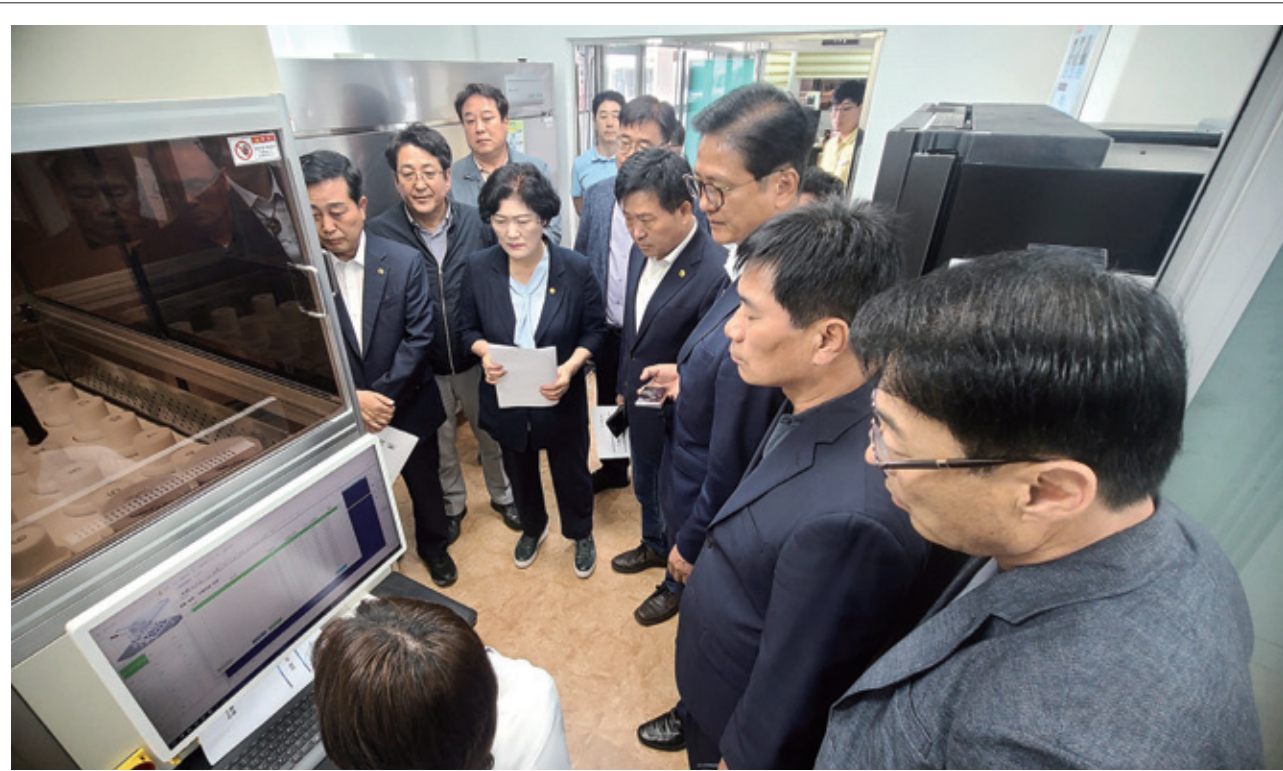
도정책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 3대문화권 사업의 현 문제점 및 연계방안과,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경북도 및 시군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 사업 간 연계방안을 모색해 지역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3대문화권 사업의 연계와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모으고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현장점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지난 6월 13일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에 따른 수산물 안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농수산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동해안 어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주 단위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동해안 어민과 수산물 유통·가공 업체 및 경북도민에게 재난문자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후의 시간 경과 및 해류의 이동에 따른 방사능 수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검사 과정에서 언론과 소비자단체를 초청해 시연하는 등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당부했다.

2015년부터 동해안에서 어획한 거래 전 단계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북어업기술원은 현재까지는 검사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본격 방류될 경우 연안 어종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선제적 보강 작업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도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그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구미소방서 신축 현장 현지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5월 9일 구미소방서와 옥계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 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공사가 한창인 구미소방서 신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고문 안전장치와 매연배출장치 설치 공사 등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 중인 옥계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과 청사 상태를 확인했다. 현장상황 확인 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소방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현장근무의 고충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산업 도시인 구미시의 경우 200여 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9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밀집 도시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협소하고 노후화된 구미소방서 청사 이전·신축은 시급한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내 청사 이전이 완료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청사 이전·신축으로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소방서는 지난해 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75%로 올해 10월에 공사를 완료해 연내 청사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 2022년도 결산 심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제3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6월 1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교육청의 결산 승인안을 보면, 2022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조 8,05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6조 8,227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6조 2,252억 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97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세입은 1조 2,633억 원, 세출은 8,283억 원 증가했다.

교육위는 이날 결산 심사에서 교육 정책 추진과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규정 위반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

보기 위해 예산 집행실적, 이월사업, 불용 사유, 예산의 성과 보고서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또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향후에는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주문했다. 윤승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 교육청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사업 집행률 제고 등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도에서 포항영일신항만(주)에 투자한 78억 원이 자본잠식으로 장부가액이 “0”이

되었다며 도 차원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사업 자부담금 예치, 보조금 정산 법정기한 준수 등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경북도교육청의 장기적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수납 연도를 표기할 것과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예산 편성 시 사업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원안 가결됐다.

“실질적 정책으로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박용선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 포항시 제5선거구
국민의힘

박용선 의원은 늘 지역민의 입장에서 많은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찾아가고 경청하며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3선의 도의원이자 부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어떠한 의정활동과 역할을 해오셨나요?

A 3선을 거치는 9년 동안 건설소방위, 교육위, 기획경제위, 예·결산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교육위 부위원장,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및 위원장을 역임하며, 조직을 운영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도의회 최초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한 의정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해외 연수와 관련한 「경상북도 의회의원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장의 사전 계획 공개, 사후 본회의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의 선진 사례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중앙부처의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부의장 직무 수행과 함께 도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역할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도의회 안에서는 지역구 사업 추가, 예산 증액, 기관 유치 등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경험을 살려 대화와 토론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제12대 도의원들과 함께 집행기관에는 합리적인 견제와 정책 제안으로 경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북의 발전은 물론 도의회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Q 최근 지역구 포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A 포항의 발전은 곧 경북의 발전이라 할 만큼 포항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먼저 경제 발전면에 있어, 포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기업 유치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차전지 및 수소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및 투자를 확대해 관련 분야의 발전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포항이 글로벌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경상북도, 포항시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유일 컨테이너 항만이자 북방교역 네트워크 항만인 영일만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로와 항차 수를 확대하고 IoT·빅데이터·AI 등 기술을 활용해 국제 물류의 중심지이자 스마트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공항 및 철도와의 연계 등 전략적 투자도 고심 중입니다.

Q 지역구 포항의 교육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A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이 필수 과제입니다. 고교평준화, 학·교통·폐합 등 중대한 정책은 충분한 논의와 시민의 뜻을 수렴해 시의적절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합니다. 법적 보호는 물론 교육 및 정보 제공, 재정 지원과 피해자 지원, 긴급대처 및 안전한 피난처 제공,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보호 프로그램과 더불어 공동체 인식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연구해야 합니다.

Q 최근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A 깨끗한 물은 건강한 삶의 필수조건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잘 정비하는 공공급수관과 달리 집안 수도의 경우 20년이 넘은 낡은 주택이 경북에만 65만 가구가 넘습니다. 정비 비용에 비해 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 오래된 주택의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가 다른 경우 등의 이유로 생기는 분쟁이나 민원도 많습니다.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을 위해 수도 시설 정비 비용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오래된 집안 수도 관련 분쟁이나 민원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지역민들을 위한 앞으로의 각오를 들려주세요.

A 지역민들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듣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순차적으로 추진력 있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계획만이 아닌 실행으로 지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민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시민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함께 협력하여 경상북도 및 포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은 이춘우 의원은 지난 1년간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언제나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춘우 의원이다.



민생경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춘우 의원

기획경제위원장 / 영천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Q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A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1년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재선 도의원으로 기획경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활동하면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몰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절박한 도움의 목소리를 들었고, 오른 물가로 인해 위축된 실물경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 금리 인상 등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경북도민 모두 힘겹게 잘 싸워주고 계십니다. 지난 1년이 와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자는 일념으로 열심히 달린 한 해였다면, 남은 1년 동안은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이러한 때에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과 무게가 따르는 자리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Q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A 민생 중심의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 발의 29건, 의원 발의 17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총 1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의원 각자의 입법 및 연구활동이 빛났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새롭게 출범한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연구원과 분리돼 독자적 방식으로 운영되기까지 과정에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혁신적으로 단행하여 고강도의 재정적·조직적 혁신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던 성과일 것입니다.

Q 위원회 소속이 아닌 도의원으로서의 의정 행보도 궁금합니다.

A 지난해 농업명장 선정 규정을 세분화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내 실종자 발생에 따른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상북도전통식품발굴·계승연구회'의 대표를 맡아 사라져가는 도내 전통식품을 발굴·보존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이 보내주시는 열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바쳐 의정활동을 펼쳐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생업 현장을 묵묵히 지키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최태림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의성군 제1선거구
국민의힘

Q 최근 발의한 조례안 중 보다 더 상세히 이야기 하고픈 조례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A 지난해 8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이에 선제적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외로움 대응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외로움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 외로움 관련 실태조사, 외로움 척도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연말 발의한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수의 하향 조정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 등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 발의한 것은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해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이송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부실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경상북도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Q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A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복지, 행복과 밀접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지 확인을 가장 중시합니다. 지난 2월에는 김천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인력부족 문제, 장애아동 어린이집 통학버스 문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등 어려움을 전해 듣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도내 취약한 의료시설 보강 등을 위해 지난 4월에는 안동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난임센터 및 우울증 상담센터, 금연지원센터 등 앞으로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할 일도 많고 하고픈 일도 많습니다. 현장을 통해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다양한 도민 요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Q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할머니 한 분이 손녀를 키우고 계셨던 지역 조손가정을 방문했는데,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보이고 집안 환경도 좋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 있는 조손가정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와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아동복지시설 종합예술제에 참석해 밝게 공연하고 춤추는 복지시설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이때 우리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상북도를 꿈꾸며 그 길에 앞장설 것을 마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꿈꾸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늘 동분서주하는
최태림 의원이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인터뷰를 통해 다짐한 그다.

윤승오 의원은 제11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도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풍부한 의정활동 경력의 소유자이다. 제12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를 영천에서 만났다.

도민 모두가 최선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의원

교육위원장 / 영천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Q 최근 경찰청 주관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셨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김태형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마약의 시작은 곧 삶의 끝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경북의 학생들과 도민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고자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지요.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어릴 때 빠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애초에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이지요.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지난 2019년 제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올해 들어 최근 발의했던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생각나더군요.

Q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더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A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와 피해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점차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여겼고 경북도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 기존의 조례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 조례에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지체 없이”로 규정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Q 영천 지역사회와 보다 나은 경북도의 교육환경을 위해 최근 교육문화복지센터 영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시다고요?

A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입니다. 그동안 전 교통입지, 특수학교 보유, 쾌적한 도시환경, 대도시와의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 영천만한 곳이 없다고 여겨 이 점을 강력히 피력해왔는데, 조만간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초 목적이었던 특수교육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의 조화,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안 중인데 이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추경 예산에 경상북도교육청 영천도서관 신규 건립 건이 반영돼 망원동에 오는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도서관 건립이 진행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위원장으로 교육복지 정책과 지역발전 모두 기여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경북의 교육환경을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교육문화복지센터의 영천 유치가 무탈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천시민들, 경북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는 도민 노동자 환경분야 등에서 왕성한 활동과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경북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가교 역할을 하고, 교육위원회가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과 함께

이선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청도군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오직 ‘도민’이라는 의정활동의 철학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의 경북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는 이선희 의원의 의정활동 이야기를 이곳에 풀어본다.

Q 국내 한 언론사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의회 의원을 조사한 결과 경북도의회에서 ‘조례를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A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현재의 재선의원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명심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의정활동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만들어가는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의지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광스럽게도 경북도의회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원입법 발의 실적이 의원의 역량을 전부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저 자신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거나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지역민의 뜻에 충실한 입법활동과 더불어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지역민원을 포함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결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역량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민들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Q 기억에 남는 조례안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대표발의하여 만든 조례 하나하나가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제12대 경북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제1호 조례로 발의했던 ‘경상북도 스토킨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스토킨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예방 및 지원책을 낳았으며 이외에도 도내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옥외행사 안전 관리 방안을 더욱 철저히 규정한 조례 등은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난해 연말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장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난 후에 어르신뿐 아니라 청소년 등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주셨고, 올 초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아동·청소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에게 버스비를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신체적,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도민들이 대중교통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르면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경북은 수도권 등과의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이동권 증진에 앞장서 경북도만의 교통복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조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현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은 국가적 현안인 동시에 지방의 최대 현안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시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하루 빨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집약한 다양한 조례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역청년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 지역기반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조례 등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방안도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과 민선 8기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맞춰,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통한 도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우선은 지방공사의 사채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가 300억 이상의 사채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데, 이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Q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예정인지, 의정활동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한다면 오직 ‘도민’입니다. 도민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의 경북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사업을 면밀히 살피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결산의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분석 및 심의를 위해 의원 및 직원의 역량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등과 관련한 조례 발의를 통해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도민을 위한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입니다. 덧붙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험에 처한 경북을 살리기 위해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 지역구인 경북 청도군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 주거 등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청도뿐만 아니라 경북, 나아가 이 시대의 청년들이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뿌리부터 튼튼한 경상북도를 만든다 의원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듣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을 대신해 의회에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도의원들이야말로 도민들의 히어로다. 제399회 임시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울려 퍼진
도민을 향한 의원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어보자.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소식지에 소개된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의 지난 발언을 모두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5. 9.)

이철식 의원(농수산위원회/경산4)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 설치 문제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축사 기반의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축사 입지 갈등관리 민간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시군 경계지역 내 가축사육 거리제한 공통사안 등 입지 선정 및 관리 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권역별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축사 입지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제안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축사 입지뿐만 아니라 도내에 상존하는 여러 갈등 요인을 논의해야 하는 경북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도내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요소와 분쟁 요인을 사전에 조정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이 더 큰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시·군 경계지역 내 주민들이 더 이상 축사 악취와 생활폐수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며 한마을 한가족인 도민 간 갈등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5. 9.)

박홍열 의원(농수산위원회/영양)



오늘 본 의원은 영양군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영양군 청기면은 동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취락지와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어 하천재해 발생 시 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계속되는 하천 범람과 홍수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우리 영양군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해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금년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주시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우리 영양군민들이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영양군민들이 자연재해 위기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양군 동천 무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5. 9.)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포항9)



오늘 본 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 유치에 염원하는 포항시민을 비롯한 우리 포항 출신 도의원과 경북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점검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방심은 금물이며 후회하면 늦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설득에 경북도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경북도의 모든 공직자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의사결정 책임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고 '이차전지 특화도시 포항'을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포항과 경북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를 보여 주십시오. 이번에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하면 우린 경북이 도약할 큰 기회를 잃는 것이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3. 6. 12.)

남진복 의원(건설소방위원회/울릉)



영토 주권의 상징,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울릉 공항과 관련하여 “114인승 정도의 기종이 취항을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는 노면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특히 급경사지 낙석위험은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개선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도로 3단계 공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울릉항 개발과 관련하여 3단계는 국제 크루즈가 가능하고 마리나 기능을 할 수 있는 3단계 항을 하되, 반드시 울릉도의 관문 역할을 했던 도동항을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의 울릉항 3단계 공사가 입안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울릉 의료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독립병원 수준의 분원을,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을 신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있는 울릉의료원을 독립병원 수준으로 보강할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울릉도에 닥터헬기를 상주시키거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중 하나는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폐교가 여러 곳이 있다 보니 그곳을 활용해서 독도교육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의 울릉도의 종합적인 개발과 소멸해 가는 울릉도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6. 26.)

김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비례)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북도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월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2022년에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기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시작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상북도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수당의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을 현실성 있게 증액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정보의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먼저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돌봄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6. 26.)

강만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성주)



본 의원은 성주군민들의 숙원인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대구 구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구-무주 구간 86.1km는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성주-대구 구간 18.8km는 지난 20년 동안 세 번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으며, 현재 네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지역민의 욕구와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성주군에는 대구와 성주를 연결하는 도로로 국도 30호선이 유일합니다. 향후 물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 박근혜 정부는 그 보상으로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여러 지원 약속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만큼 향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고 동서3축 고속도로를 완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과 새만금 등 교통망을 완성해 환동해와 환서해, 내륙 지역이 바다·땅·하늘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벨트가 조성되어 국토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원활한 통과와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6. 26.)

박성만 의원(기획경제위원회/영주2)



12대 의회가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지방자치가 30년 되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지방의회 정치는 실종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되고 정권교체의 핵심 역할을 한 경상북도 도민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경북 구미를 상징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정연설을 할 임시회였습니다. 그 자리에 지사께서는 대통령을 영접하러 구미에 가셨습니다. 우리 본회의도 의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60명 도의원 전체를 대변하는 배한철 의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정무라인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께서는 한번 유념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 5월 1일 행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23개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은 사안입니다. 신청 전 지사께서 23개 시군의 시장·군수들과 도의회 의장단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조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8개 시군이 서명운동을 하고, 아까피,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면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온 도민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경상북도 도백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과연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철우 지사께서 더 큰 정치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간다면 위대한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때에 따라서는 인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6. 26.)

박채아 의원(교육위원회/경산3)



본 의원은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경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 마약사범은 총 2,410명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가 급증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10대부터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처음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의무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57개, 2022년 27개 전국 하수처리장을 상대로 하수 기반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곳에서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17개 시·도 중 필로폰은 전국에서 열 번째, 엑스터시는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의 검출량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경북의 대표적 3개소만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총 468개의 생활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대표적 하수 기반 역학 마약류 모니터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자체적인 상시 하수 역학조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의 유통을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의 정책을 주도하는,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요.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6. 26.)

최병근 의원(기획경제위원회/김천1)



저는 올봄 이상저온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과, 나아가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초 갑작스러운 영하권의 추위로 도내 3만 호 가구가 이상이 냉해, 우박, 서리 등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이상저온 피해농가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가 일정 비율 이상인 농가에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방안과 냉해피해 묘목 구입비용도 전액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방책 마련입니다. 기후위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미세 살수장치를 비롯한 지표면 온수 살수 장치, 열풍 팬 등 저온피해 방지 장치들을 확대 보급하여 이상저온 현상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정보를 활용한 예찰 강화입니다. 이상저온 발생 전 피해 예상 과수농가에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기상정보 알림 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가능한 피해는 인재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있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에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6. 26.)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상주1)



본 의원은 농업 관련 보조금 일몰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법에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31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조세감면 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어업용 기계류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 7개 세목을 감면받아 시중판매가보다 낮게 공급됩니다. 지난해 경북농어가에서 사용한 면세유 사용량은 국제규격 수명장 90개 분량입니다. 유류비는 인건비, 농자재비와 함께 농어업 생산원가의 주된 요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화의 확대로 유가상승이 농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담보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에 규정된 일몰기한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경북농어업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팜 보급, 영농 규모 기계화 확대 등의 성공을 위해서 면세유 공급 등을 비롯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조세감면 기한 연장이 반복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서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ATURE OF

지치기 쉬운 지금,
진정한 ‘쉼’을 가져보세요.

‘쉼’은 ‘내어 맡김’입니다.
‘애씀’을 내려놓고,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쉼을 갖습니다.

진정함 쉼은 우리의 인생에 자양분이 됩니다.
쉼을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잠시 ‘쉼’을 실천하세요.

GYEONGBUK

이가리 달 전망대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산67-3

지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달려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지난 4월 5일 경북도议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일수 의원.
주민의 편에 서서 귀를 열고, 주민을 대신해 말하고,
주민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도정활동을 하겠다는
그의 각오를 직접 들어봤다.

손잡다 의원 인터뷰 Part II



Q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도의원 당선을 기점으로
달라진 점과 정치적 소신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A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러 봉사단체들을 통해 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
이지요. 하지만 제가 정치라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보니 단순히
특정 단체를 위한 현안을 넘어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현안
을 살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 선거구 주민들을 위
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요.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예사롭게 지나치던 상황들을 도의원
이 되고 난 후에는 유심히 살피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울어진 전신주를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더라면, 지금은 “주민들에게 위험하고 불편하겠
구나.” 이런 식으로 늘 주민들을 위한 대의적인 입장에서 살피게
됐습니다.

Q 그렇다면 도의원의 시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 현안
은 뭐가 있을까요?

A 제 지역구(상모사곡동, 임오동)는 근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
끈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출
룡한 업적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국민들에게 어필되고 재조명
되는 비판적인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 대통
령에 대해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젊은 세
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그의 업적을 알리고
그 정신을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
다. 박 대통령의 생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미의 유일하고 영
원한, 큰 자산입니다. 생가부터 역사자료관, 새마을운동테마공
원을 잇는 교육적인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더 나아가 새마을운동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동
남아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배워가
는 그런 명소가 거듭나
게 하고 싶습니다.
구미의 미래먹거
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
니다.



Q 소속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특별히 추진하고픈
정책이 있다면요?

A 우선 소속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 한창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복지부분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습니다. 경북도 내 어두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고,
도의원으로서 소외된 분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경북도민들
에게 하고 싶은 말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A 도의원이란 자리가 제 지역구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북
전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선
구미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함께 관광적인 부분들은 지원해 나갈 수
있습니다. 최초의 도립공원인 금오산 등 도에서도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 어필한다면 구미, 더 나아가 경북을
지금보다 더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의원들도 저처럼 생각하겠지만 300만 경북
도민들이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밝히는 촛불 한 자루가
된다면 이들이 모여 밝은 사회, 누구나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인들은 제 역할을
다해야 하고요. 지역민들이 저를
찾는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보듬고 어려움을 돕고 같이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구미, 산업도시 탈피해 문화관광도시가 되길

김용현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구미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구미를 언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산업도시일 테다. 과거 구미는 다양한 제조업들이 집결된 산업도시였다. 이런 구미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지금 준비 중이다. 김용현 의원은 금오산과 낙동강을 아우르는 관광 인프라 개발이 시급하다 말한다.



□ 우선 대표적인 경북 관광의 얼굴,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금오산 도립공원은 1970년에 지정된 국내 첫 번째 도립공원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연간 2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구미공단에서 바라보는 금오산은 그 모습이 누워있는 부처와 닮았다고 하여 와불산이라 불리기도 하며,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에 영남의 금강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금오산은 구미 시민들을 따스하게 품어주는 안식처와 같습니다. 또 경부선 철도와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주말이면 인근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대표적인 경북관광 명소입니다.

□ 구미의 대표 관광지인 금오산 도립공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시설과 인프라들이 확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그동안 금오산 정상 미군기지 내에 묻혀있는 황기로 선생의 걸작품인 후방대와 금오동학 그리고 성안마을까지의 금오산 케이블카 연장 개발,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등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금오산 관광객 유입과 지역 간 교류 개선을 위하여 순환도로 확장,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둘레길 조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휴게시설 확충 등 관광 인프라 조성과 환경 개선 또한 시급합니다.

□ 신공항 시대가 다가온 만큼 더 이상 금오산 도립공원 개발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뜻인가요?

△ 도립공원 지정 후 53년이나 지났지만 적절한 인프라 확충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과 열악한 휴게시설 때문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따른 새로운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한 관광 랜드마크도 부족합니다. 금오산 관광 케이블카는 1974년에 개통하여 50년이 지났습니다. 노후된 케이블카 대신 자연경관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금오산 경관분수 조성을 통한 새로운 야경 명소를 만들고 금오산 도립공원을 주 무대로 하는 축제를 기획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구미시는 신공항시대를 여는 거점도시로서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 허브 거점도시로 비상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 금오산 도립공원은 지속가능한 개발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명품 도립공원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합니다.

□ 경북도 역시 신공항 시대에 맞춰 금오산 도립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을 표한 것으로 압니다.

△ 네. 경북도에 의하면 내년에 10년 만에 실시되는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따라 금오산 도립공원도 10년 만에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역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케이블카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유럽 관광 선진국처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미, 김천, 칠곡, 성주에 걸쳐있는 경북의 광역관광자원인 금오산 도립공원이, 도래하는 공항 시대에 머물고 즐기는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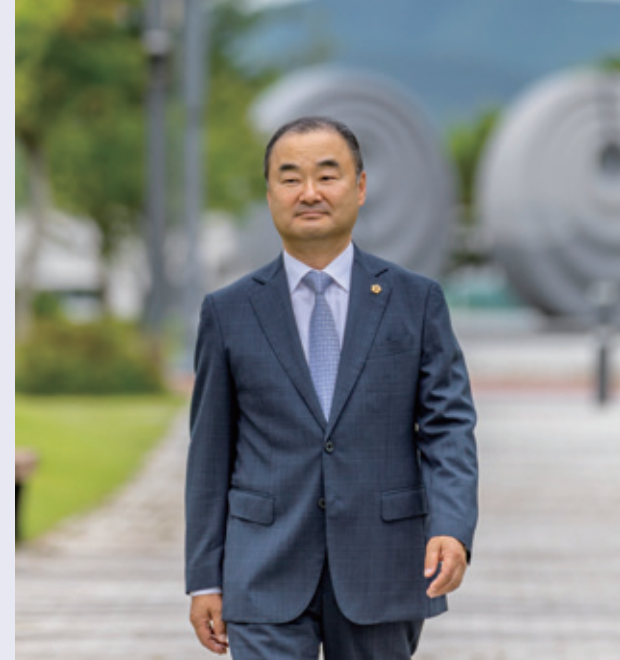


도민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개발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박규탁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비례대표
국민의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지방의회 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박규탁 의원이다.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의 각오를 들어봤다.



Q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후,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이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돌아켜 보면, 개원 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현장확인 등 소속 상임위 관련 업무와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으로서 정책지원관의 선발, 평가 등의 합리적인 규정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 실재 없이 분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려 있던 문화관광산업이 이제 조금 숨길을 트려고 하는 시기인 만큼,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사업전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수립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경북을 물려주기 위한 환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비점오염원의 관리, 감시망 구축 및 비점오염원의 집단화 등의 정책대안을 수립해 미래 세대가 살아갈 친환경 경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산업의 관점으로 인식전환하고, 환경도 보존과 산업의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찾고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북의 문화, 관광, 체육,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도민의 많은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최근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 성과가 듣고 싶습니다.

△ 경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 지정축제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축제평가결과의 반영을 위해 평가결과



하위 30%에 대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 지정축제 선정과 선정된 축제의 관리 및 유지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새롭고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발굴하고 지역 축제 간 경쟁을 통해 우수 축제는 집중 투자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요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무인항공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책적 제안과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요건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서면질의 등에서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모든 문제를 공공이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많은 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만, 저는 그보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낭비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정치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 경북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추진력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민만을 보고 달려온 지난 1년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을 다집합니다

정경민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비례대표
국민의힘

지난 6월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정경민 의원.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중앙당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는 자리에 오른 만큼 이에 대한
결연한 각오가 느껴지는 그와의 만남이었다.
경북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있는 그를 만났다.



Q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발전을 이끈 광역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개원 이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입법활동, 정책제안 등 오직
도민 여러분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최근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들
고 싶습니다.

A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의 예약서비스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예약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자연휴양림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서, 경북의 환경오염 요인과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정책제안과 입안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 현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한 예산
사용과 정책의 성과 등에 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정책제안과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롭게 도입된 지방의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정책지원관제도’를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1일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민의 목소리가
중앙에 닿을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겠습니다.

Q 도원으로 활동하게 된 지 벌써 1년입니다. 소회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A 도원으로 입성한 것이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경주 신라왕경을 비롯한
경북이 가진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경북관광이 다시 새롭게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도민의 건강과 직결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정
운영에 대한 감독과
견제 등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묵묵히
경주하여 성숙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의 눈길로
지켜봐주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도민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대변해 질문드립니다

도정질문은 도정에 대한 각계각층 도민들의 의견을 경북도 의원들이 청취 및 수렴하여 도지사나 관계 공공기관, 실국 등 부처에 대신 질의하는 절차입니다. 도정질문은 그동안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불공정한 사안이나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 방안 및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지면 관계상 도정질문 전체 내용을 모두 다 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의원별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영상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339회 제1차 본회의 23. 4. 25.



김용현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구미1)



첫째, 국내 제1호 도립공원인 금오산도립공원에 체계적이고 폭넓은 개발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이며 경북의 명품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과 신성장 산업 유치를 위해서 지방도 제927호선의 국도 승격 및 4차로로 확장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고,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는 반드시 선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구미 사곡에서 신공항 구간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데 도 차원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과 관련해 도내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기관 확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경북형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보통합(교육·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및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책 대상을 0~5세로 추진하는 것)의 성공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할 때 다양한 관련 주체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유아 학비 경감을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에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339회 제1차 본회의 23. 4. 25.



김대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안동1)



첫째, 경북도청 신도시 10만 인구 명품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 및 보육 관련해서는 출산·보육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정책 마련과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종합병원 유치와 동시에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 유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맑은누리파크는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북 북부 지역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립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하여야 하며 신도시 발암물질 노출 위험성을 파악하는 연구 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의 산불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감시에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무인 카메라가 도내 전역에 확충된다면 경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위험을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불진화헬기 확충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헬기도 경북은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각 시군이 기령이 낮고 용량이 큰 임차헬기를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원거리 출동시스템과 함께 출동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산불 피해지 복구는 조속히 관련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339회 제1차 본회의 23. 4. 25.



김원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울진)



첫째, 챗봇의 이용과 관련하여 과감한 예산 투자와 자료 업로드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키워드 및 질문 차단 프로그램 설계 등의 정보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보완대책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불피해 시설물에서 2차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차원에서 2차 어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2차 어업 피해지원 대책 마련과 집중호우 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과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 동력으로 전통과 역사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 단위 행사 승격과 역사인물 발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랍니다.

다섯째,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을 가진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학교 폭력의 근본적 원인과 사전 예방대책 등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0회 제2차 본회의 23. 6. 20.



윤종호 의원
(교육위원회, 구미6)



경북은 지방소멸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작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은 같은 지역,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한쪽은 도시화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과대·과밀 학교도 있습니다. 1,000명 이상 큰 학교는 28개교지만 학생 수는 무려 3만5,445명으로 전체 14.1%에 해당합니다. 이는 60명 이하 작은 학교 평균으로 환산하면 무려 1,265개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학교 설립은 주변 유발률 예측 데이터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쾌적한 환경으로 완성 학급이 만들어졌지만 큰 학교는 완성 학급 후에 학생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큰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학생이 증가하면서 단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고 일반교실만 증가되었을 뿐 특별교실, 지원시설, 운동장, 급식실 등 턱없이 부족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시개발단지 계획 시부터 보다 정확한 크기를 산정하지 못하고 충분한 여유 학교를 확보 못함에 따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경북의 미래 세대를 책임질 사회인적 자원으로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이 경북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처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교육감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모든 부분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제2차 본회의 23. 6. 20.



서석영 의원
(농수산위원회, 포항6)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계획 수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 상황별 체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상시계획 수립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계획은 무엇이며, 이와 연계한 학술용역 추진 필요성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해복구 시스템 개선, 소하천 관리 기준 강화 등 수해에 방공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며, 도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산강홍수통제소 설치 및 국가지진방재교육

관의 조속한 건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포항 항사댐 조기 착공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철우 지사님, 우리 경북은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의 필요성을 작년에 너무나 뼈아프게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 되며 철저히 예방과 사전대책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급격한 기후변화가 경북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형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고 태풍 발생 이후 다음해 3월 이전 수해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주시고 소하천 하상준설 지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관리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반드시 정비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340회 제2차 본회의 23. 6. 20.



이우청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김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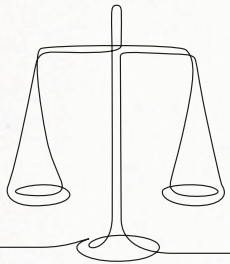
첫째, 사드 관련하여 부지 선정이 당초에 성주읍 성산포대에서 현재의 초전면 골프장 부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드 배치 지역 마을에 집을 구해 들어가 살겠다던 지사님의 약속을 언제 실천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사드 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대구에 주둔 중인 50사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의 최적지로 김천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사드 배치 지역은 군사적 효용도가 높은 지역임과 아울러 국방부에서 추진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김천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만큼 대구 군부대를 사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주민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해야 하며 농소면과 남면 도시계획을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으로 상향해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시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사님께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과 사업 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는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기금으로 운용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고 있는 반납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존속기한인 2027년까지의 기금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



1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형식 의원

제정이유

-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사회가 점차 고도화, 첨단화되는 시점에서 데이터의 생산 및 유통, 거래 등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은 경북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함.

2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홍구 의원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마련, 안전교육 강화,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실에 적합한 정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마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관리,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황명강 의원

제정이유

-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에 대한 정의,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동업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홍보활동에 관해 규정함.

5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영서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 전직대통령에 대한 용어를 정의,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 고양을 위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기념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선하 의원

제정이유

- 매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주요내용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을 규정함.

7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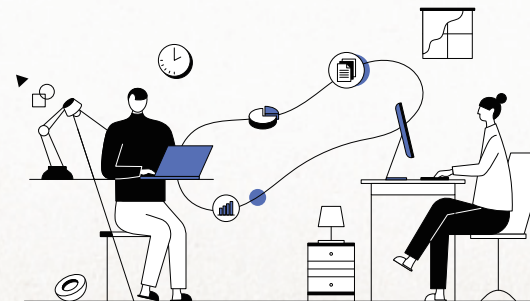
대표발의 박규탁 의원

개정이유

- 경상북도 지역축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과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 대상 축제에 대한 예산의 사용항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지원이 예상되는 축제에 대한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축제 지원에 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 지정축제의 지정주기를 2년, 도지사가 지역축제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지역축제 평가 시, 지역사회에 기여 부분과 안전관리와 관련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축제개최 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은 삭제하고,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하는 예산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8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대표발의 임병하 의원

제정이유

-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9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용현 의원

개정이유

- 도지사가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활용기본계획」이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으로 동법 「자원순환기본계획」에 통합되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의무사용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재활용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 순환골재 등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순환골재 등 활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0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석영 의원

개정이유

-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 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에서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청년농업인부문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청년농업인부문을 신설함.

11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덕규 의원



제정이유

-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나아가 경상북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동물 복지축산농장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2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대표발의 서석영 의원



제정이유

-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대상 수상자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포상하여,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상의 명칭, 시상부분과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자 선정에 관한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현지조사, 수상에 대한 시상과 특전을 규정함.

13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대표발의 허 복 의원



제정이유

-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14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창기 의원



개정이유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에 관해 신설함.

15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박승직 의원



제정이유

- 양육자의 일시적인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119소방관서에 돌봄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매년 돌봄터의 운영계획을 시행, 돌봄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운영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돌봄터의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돌봄터의 돌보미의 지정 및 직무, 돌봄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6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차주식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방연물품 비치·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대비용 방연물품 사용교육 및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사용교육, 대피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7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조용진 의원



제정이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 검사조서의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 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 및 정보공시를 규정함.

18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기욱 의원



개정이유

-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서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규정함.
- 물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물산업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물관리 기술 개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9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선희 의원



개정이유

-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

20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만수 의원



개정이유

-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의 조례를 마련하여 도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자율방범대원 등의 처우를 향상시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자율방범연합회 등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 자율방범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1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대진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수도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로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함.
- 시장, 군수가 「수도법」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2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창혁 의원



제정이유

-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중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지원대상으로 정함.
- 파독근로자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 사항,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는 사업, 파독근로자 지원 및 기념사업의 경비 보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3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최병준 의원



제정이유

-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태권도를 연계한 지역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태권도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태권도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 태권도와 관련된 홍보 및 태권도의 날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24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희수 의원



개정이유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예방과 중독 치료보호를 통한 도민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사업,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5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임기진 의원



개정이유

- 경상북도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종류 일부를 삭제하고 선택예방접종의 대상자, 접종 기록 등 효율적 관리업무를 위하여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 등록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를 반영하여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을 수정하고 예방접종 기록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6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태림 의원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과 응급의료장비 설치 등 응급의료에 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7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임기진 의원



제정이유

-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주요내용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업작업안전재해 지원대상,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8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연규식 의원



제정이유

- ESG는 사람, 사회 및 제도 구조와 환경을 보호하고 민주적 의무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경영방침으로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에,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공익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용어 정의,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책무,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인증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29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경민 의원



개정이유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의 예약서비스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예약자에 대한 사항 구체화 및 예의 규정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자연휴양림 예약자에 관한 내용, 예약 제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관리자에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0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기욱 의원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경북도민 누구나 쉽게 관광환경에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대상시설의 설치기준과 지원 사업, 경상북도 무장애관광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1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영숙 의원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관상어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관상어산업 관련 지원사업, 경상북도 내 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을 규정함.

32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영숙 의원



제정이유

- 양잠산업이 미래 대체 먹거리로 부상하는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국 유일 국산명주 생산 지역으로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 기능성 양잠산업에 대한 도지사 등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의 촉진,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양잠인의 날에 관하여 규정함.

33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서석영 의원



제정이유

-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자 중요한 경관자원인 마을숲을 보전·관리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마을숲 보전·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관련사업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 우수 마을숲에 대한 지정 및 포상을 규정함.



34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근수 의원



개정이유

-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계획수립, 세계화 촉진, 지원사업 등을 보완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교육훈련, 지역 농업과의 연계 및 세계화 촉진, 지역 전통주의 우선 이용,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35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노성환 의원



제정이유

-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폐농약 수거함의 제작·보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36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승직 의원



제정이유

-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지역 수목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의 주택, 축사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산불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도지사는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내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 산림인접지역에 30m 간격의 안전공지 조성을 권고,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7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순범 의원



제정이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코자 함.

주요내용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추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 소방설비등의 설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38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진복 의원



개정이유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며, 불명확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다함께돌봄사업 실시에 따른 관련 규정 추가하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용어 변경함.
-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

39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정한석 의원



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자살위험 노출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성장 및 발달단계에 맞는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자살예방 기관 지정·운영, 교원 연수, 자살 시도 학생 등에 지원, 학생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40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채아 의원



제정이유

- 학생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41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조용진 의원



개정이유

- 독도교육 강화 사업에 재외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재외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도교육 민간 교류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만의 독창적인 독도교육을 홍보함으로써 세계교육의 표준이라는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독도교육의 대상에 재외학생을 추가, 용어의 정의를 신설,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에 재외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독도교육 강화 사업에 재외교육기관 독도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의 위탁규정을 신설함.

42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윤승오 의원



제정이유

- 「기초학력보장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구성, 기초학력진단검사,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3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대표발의 김홍구 의원



제정이유

- 급증하는 개인이동장치의 사고를 줄이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실시와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하도록 규정함.
-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수칙을 누리집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

44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차주식 의원



제정이유

-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용어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대상 기관과 기관의 예산확보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방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화재대비용 방연물품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사용교육, 대피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강렬한 여름이 존재하기에
다음 계절이 다가옴을

❄️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지치고 힘들지라도
이 또한 지나감을 우리는 압니다.

❄️
지금을 견뎌내며
우리는 이렇게,
또 한 걸음 영글어 갑니다.

❄️
Beautiful Gyeongbuk



지산동 고분군, 고령군의 미래먹거리 대전환점 되길

노성한 의원

농수산위원회 / 고령군 / 국민의힘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권고 결정.”

노성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고령군에서 우리는

여기저기서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노성한 의원은 이번 유네스코 등재가

농업이 기반인 고령군에게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딸기로 유명한 고령입니다. 과수 농업과 관련한 고령의 현주소를 듣고 싶습니다.

1973년, 시설하우스로 딸기 재배를 고령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설하우스를 도입하던 초창기였죠. 이렇게 딸기로 위세를 떨쳤던 고령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딸기의 전국 생산량은 4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16개 시군 중 농가당 수익률은 13번째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는 시설 발전이나 재배방법을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 못 따라간 것일 수도 있고 행정적 조치나 지원들이 미비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고령의 딸기가 전국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큼니다. 도의원으로서 경북도가 어려운 고령 농가들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대응 고도화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런 연유의 연장선입니다.

고령군에게 축하할 일이 생겼네요,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권고가 고령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단독 등재가 아닌 김해, 함안, 함천 등 타 지역과 함께 7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라는 점 때문에 홍보 면에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미래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고령군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오는 9월 등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고령군은 유적을 잘 보존하는 것 외에 지역 농·특산물과 잘 매칭시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현재 군에서 관리 중인 대가야박물관이 최소 도립박물관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고령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최근 관심 갖는 현안이 어떤가요?

비단 고령군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텐데, 인구유출과 인구감소입니다. 고령은 대구라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인구유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주여건, 문화생활 등을 이유로 대구에 거주하며 고령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특히 자녀 교육문제로 인해 고령을 떠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고령에는 현재 고등학교가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둘뿐입니다. 이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야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복형 기숙사형 고등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교육 공간을 넘어 생활 공간, 취미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 이외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향후 고령의 발전에도 도의원으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8개 읍면으로 이루어진 고령은 산동과 산서지역으로 크게 나뉘져 있습니다. 산동 지역이 작은 공단들이 많이 들어서 산업화가 진행됐다면 대가야읍이 있는 산서는 딸기재배와 유네스코에 등재될 고분군을 간직하고 있지요. 이 산서 지역의 자연을 잘 살려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만한 양질의 일자리와 더불어 미래먹거리 차원의 관광자원을 지역민과 함께 발굴해 보고 싶습니다.





동해안과 맞닿은 영덕 안전한 수산자원 관리로 도민에게 신뢰를!

황재철 의원

농수산위원회 / 영덕군 / 국민의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연일 뜨겁다. 동해안에 맞닿은 영덕에 오염수 방류는 첨예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황재철 의원 역시 가장 주의깊게 살피고 있는 지역 현안이기도 하다. 영덕군, 더 나아가 경북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점검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그의 각오에서 결연함이 묻어났다.

당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의 소회와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년 저에게는 참 바쁘게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4년 만에 도의원으로 복귀하여 농수산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영덕과 도의회를 칠 새 없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도의회 단 3명뿐인 무소속 의원으로서의 지난 1년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재선의원으로서 영덕군민께 약속드렸던 공약 사항과 경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지역구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동해안에 맞닿아 있는 우리 영덕군에 가장 첨예한 이슈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물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만이 도민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때 관련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동해안에 집중되고 있는 태풍 피해도 걱정입니다. 올해만큼은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태풍대비 태세, 예방 사업들도 철두철미하게 살피겠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하신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50억의 예산을 들여 건립된 영덕군 소재 연구센터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독립된 연구기관이 아닌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3명 1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은 6급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유일의 임산버섯 특화 연구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청사진과는 맞지 않습니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71%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 종주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임업

인을 위한 대체 자원 개발 등을 위해서라도 연구센터의 역할과 조직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준비 중이신 정책이나 조례가 있으시다면?

우리 영덕은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로 항상 발목을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광역 정부에 항상 주도권을 뺏긴 채 대규모 사업에서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체류형 관광 일번지 영덕군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의 아낌없는 협조를 받아내는 데 온 의정 역량을 쏟아낼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동해바다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천혜의 동해바다를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만이 영덕군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인구소멸과 고령화, 모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권광택 의원

교육위원회 / 안동시 제2선거구 / 국민의힘

권광택 의원은 경북이 직면한 문제인 지방 인구소멸과 인구 고령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대책 마련에 늘 고심한다.
올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5분 자유발언도 이런 상황을 직시했기에 가능했던 일. 선제적 대응으로 당면한 현안의 돌파구를 항상 찾고자 하는 그다.

먼저 경북 노령인구를 위해 대표발의해 본격 시행된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고령 운전자 실태조사,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부분이 시대적·환경적으로 사안이 엄중해짐에 따라 독자적인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10년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겨 이번 조례안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여깁니다.

지방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협력적 프로세스를 제안하셨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연두 업무보고를 보면 2023년을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4대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교육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의 중심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보는 이유입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협업하면 분명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가정맞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어떤 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이라는 통합된 범주로 일원화돼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관리·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를 경북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 또한 원활한 이관을 위해 조직 정비와 인력을 충원하고 교원 양성 체계 및 처우 개선, 교원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재정·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봄부터 '늘봄 학교(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시행으로 경북교육청은 40개교를 대상으로 한 초등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죠. '에듀케어'라는 교육과 보육의 개념이 통합된 셈인데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명입니다.

지역맞춤 교육개혁 분야를 통해서 어떤 협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신규 편성과 고등교육의 권한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 정부의 고등교육 역할론에 변혁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공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도민의 요구가 많았던 학교시설의 공동 활용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올해 '학교시설복합화'를 천명한 만큼 경북교육청이 인식을 바꾸고 경북도와 함께 도민을 위한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지방 인구소멸 문제는 물론,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린이 의료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조용진 의원

교육위원회 / 김천시 제3선거구 / 국민의힘

지난 6월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김천시립울곡도서관에서 열렸다.
보건·복지·교육 관계 공무원과 일반시민 180여 명이 모여
중지를 모은 이 자리에 조용진 의원도 함께했다.
지역 내 어린이 의료서비스에 누구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역구 현안 관련 의정활동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지역 내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사 수의 부족과 소아과 폐과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 경북 내 중소도시에서는 어린이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연구회」를 대표로 발족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1일,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하신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토론회는 △이기호 인제대 교수의 '경북형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발제를 기반으로, △박창제 경북대 교수의 '재원 중요성·공공보건 의료전달체계 활용' △김운수 호남대 교수의 '생애 초기 영유아 건강관리 증진' △최은정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 △이경수 경북공공보건의료원단장의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장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어린이 의료체계 적용 가능성' 등 전문패널 5명이 참여해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실제로 지역에서는 아침마다, 주말마다 소아과를 찾아 오픈런을 하거나 하루 종일 대기표 하나 들고 아픈 아이를 달래고 있어야 하는 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지방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저는 중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직접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도출되었나요?

아직 진행 중이라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기존 복지체계에 있던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 시스템을 접목하는 방안인 의료진 간 협진 체계 구축, 비대면 원격진료가 있고, 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의료

수가 개선을 통한 개원의 유인, 민(기존병원)-관(자치단체)의 긴밀한 의료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 중 장단점 및 우려를 최대한 보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 역시 쉬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인식과 해결 의지를 갖추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성급히 추진하지 않고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어린이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당장 개선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의 노력이 한 걸음씩 모여 도약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보만리의 자세로 최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겠습니다.



NEWS

의정 소식



입법정책 역량 강화 위해 모인 도의회·시군의회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 및 23개 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입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열었으며, 또한 도의회와 시·군 의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간의 업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방의회 입법정책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한 직무특강은 경북도내 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으며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독도 억지 주장 담긴 日 외교청서 즉각 철회해라”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 11일 발표한 ‘2023 외교청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배한철 의장은 “일본이 지난 3월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 우기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적반하장”이라며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장은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모순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폐회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월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구미시 제4선거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일수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 선서와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5월 9일 개회한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이번 회기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규칙안 등 40여 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영호남 화합·상생·성장의 길 열었다

경상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지난 4월 27일 경북도의회는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일원에서 전남도의회와 2023년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경북과 전남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시기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양 도의회는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와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 도의원들은 “경북과 전남의 여건이 비슷해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해야 할 현안이 많아 앞으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한편, “조례 제정, 정책대안 개발을 공유하고 향후 경북과 전남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2023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5월 1일 2023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학교안전연구회’ 외 5개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6건의 현안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경상북도 학교안전연구회(대표 차주식 의원)의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 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를 비롯해 △경북혁신도시 발전연구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경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연구’, △경상북도경제교육발전연구회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 △경상북도 전통식품 발전·계승 연구회 ‘경상북도의 사라져가는 전통식품의 발굴 계승 및 지역향토특산물화를 위한 연구’,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경북 지역축제활성화 방안 연구회 ‘경북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방문객 유입 확대방안 연구’ 등이다.

이날 최종 의결된 6개의 연구과제는 과제별 3~5개월에 걸쳐 용역이 추진되고, 올해 하반기에 연구를 마무리해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배한철 의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배한철 의장은 지난 5월 1일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했다.

이날 배 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며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인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250일간 지속될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5월 9일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초대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김홍구 의원을 선출했다.

경상북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2명과 정창수 소장 등 6명의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선희 위원장은 “올해 경북도 본예산이 12조821억 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이 5조9,229억 원으로 예산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톨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는 지난 5월 12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을 맡은 포항대 김준홍 교수는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상인회장 대상 FGI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 ‘관광지화’의 전통시장 3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전통시장의 유형별 분류와 그 방향성에 적합한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한편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는 대표 배진석 의원을 비롯해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도의회 의원 현안연구단체로,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입법 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에 유용히 활용될 예정이다.

NEWS

의정 소식



농촌 일손돕기, 경북도의회가 ‘앞장’ 서다

경상북도의회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 7일 이뤄진 농번기 일손돕기는 고령화 및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30여 명이 문경시 산북면 소재 사과농장을 찾아 일손을 보탬 것이다.

먼저 농장주로부터 사과 적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800평 정도의 과수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적과 작업과 함께 주변 환경 정비 등 바쁜 농번기에 일손을 도왔다. 이날 현장에는 박영서 부의장, 김창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김경숙 도의원이 농가를 찾아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농장주는 “과수작물은 특히 적과나 수확 시기에 일감이 몰려 농번기마다 일손이 달려서 걱정이었다”며 “때마침 올해 도의회 직원들이 먼저 찾아와 도와주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경북도의회, 직원 대상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도의회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법제역량 향상을 위한 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지난 6월 8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부터 법규 해석, 운영 등 법제 전반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강사진은 실무 경험이 많은 법제처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방의회 위상에 맞는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와 공동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마련했다. 그동안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인사권 독립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방안, 주민조례 발안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북도의회, 울릉도에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6월 12일 울릉도에서 개최됐다. 울릉군 현지 안용복기념관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 및 집행부 공무원, 취재 기자단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 울릉군 현지 본회의를 시작으로 안동 경북도의회로 복귀해 20일 도정질문을 실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민생 조례안 등 37개의 안건을 심사한 뒤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최종 처리했다.

배한철 의장은 울릉도 현지 개최사를 통해 “울릉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경북의 지방분권에 바탕한 균형발전을 현실화시킬 역사적 출발선에 우뚝 서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상북도의 굳은 의지와 각오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배한철 의장,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6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제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를 지방의회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지방의회에 청년인턴제가 도입되면 의회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며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전문 분야별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 청년정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이 걷다 궁금해요 이것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 이제 만 나이를 사용해요

지난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나이, 만 나이 이렇게 따로 언급하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나이 셈법을 설명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 통일된 나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을 말한다.

*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 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다.

◎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85 - 1 = 37세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85 = 38세

◎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을까?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질까?

정답은 No.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다.

◎ 지금 친구끼리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익숙해지게 되면 유독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 만 나이를
알고 싶다면?



QR 코드를 통해
법제처에서 확인하자!

청소년을 위한 경북도의회 Q&A



지방자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렇지 않다.
내 삶과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 경북의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코너,
지난 봄호에 이어 경북도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다.

Q&A

Q 경북도의회는 왜 필요할까요?

A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의 뜻에 따라 경상북도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개개인의 의견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은 의견들로 인해 도의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대혼란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견을 선출하고, 그 대표자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대표자는 잘 청취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모인 의견들을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모여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필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결정된 사안들을 도지사, 교육감에게 보내 도민 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Q 그렇다면, 도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A 도민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 어른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도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를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렇게 각 지역(선거구)을 대표하는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죠. 경상북도에는 총 61명의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도의원은 4년 동안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하며, 4년 뒤에는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 여기 어때?!

울릉 관음도 & 오징어축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선포하고 맞이한 첫 여름 휴가다. 팬데믹을 거치며 해외가 아닌 국내 여행에 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해외와 견주어 손색없는 수많은 국내 관광 명소들을 찾게 됐다. 이 가운데 울릉도는 최근 급부상한 경북의 핫플레이스다. 이색적인 울릉의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해보자.

쪽빛 바다를 품은 울릉 관음도

울릉군 북면에 위치한 관음도는 저동항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높이 106m, 둘레 800m 크기의 섬으로, 독도와 죽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울릉도 부속섬이다. 후박나무, 동백나무, 억새 등이 즐비한 무인도로, 각새(습새)가 많아 '각새섬'이라고도 불렸다.

섬의 탐방로를 걷다 보면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신비로움마저 느껴져 국내가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단, 관음도는 바람이 세게 불 때 출입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울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 출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헛걸음하지 않는다.



관음도 가는 길

자동차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1, 산2-22 (울릉도 북동쪽 해상)
대중버스 도동항(울릉여객선터미널) 출발 → 도보 1분 → 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천부 방면 버스 승차 → 천부 버스정류장 하차 → 천부 버스정류장 관음도 방면 승차 → 관음도 버스정류장 하차 → 도보 1분 → 관음도 매표소 도착



으뜸 식물생태 탐방지

2012년 울릉도 섬목 지역과 관음도 사이에 보행연도교가 놓인 뒤 도보로 탐방할 수 있게 되면서 관음도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계절별로 다양한 식생이 자리한 관음도는 생태탐방지로 으뜸인 곳이다. 봄에는 보리밥나무 열매, 후박나무 새순, 말오줌나무 꽃, 쑥부지깻이 새순을, 여름에는 섬바디 꽃, 말오줌나무 열매, 갯까치수염 꽃 등을 볼 수 있다.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 보리밥나무 꽃과 왕해국울, 겨울에는 송악, 감탕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꽃을 만날 수 있다.

손에 꼽는 지질명소

관음도는 조면암질 용암이 여러 번 분출해 형성된 곳으로 다양한 지질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유람선을 타고 외부에서 관음도를 보면 북쪽 하부 해안절벽에 있는 높이 14m가량의 두 동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관음상굴이다. 해식으로 조면암에 발달한 주상절리와 수평절리를 따라 암석이 무너져 내려 생겼다. 한때는 해적 소굴이었다고 전해지며,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면 장수한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울릉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징어축제

밤바다를 밝히는 오징어잡이 배의 집어등 불빛은 울릉도에서 는 그야말로 한편의 낭만이다. 울릉도는 오징어와 더불어 살아 간다. 울릉도 오징어축제는 울릉도의 비경을 배경으로 푸른 동 해에서 오징어를 잡아보고, 오징어 건조과정을 체험하면서 각 종 오징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행사다. 2001년 8월에 처음 개 최,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축제로 울릉도 오 징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매년 8월 중 개최한다.

행사명 2023년 제21회 울릉도 오징어축제
기 간 2023년 8월 16일(수) ~ 18일(금) 3일간
장 소 울릉읍 저동항
주 제 태고의 신비, 꿈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

* 더 상세한 축제 일정을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상기 일정은 향후 기상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고~ 색칠도 하고~ 경북을 함께 알아가요

우리 땅, 독도



숨은그림찾기 응모 방법

우리 땅,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이다. 울릉도의 동남향에 위치한 섬으로 동도 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 어 있다. 3세기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 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라 지증왕 때 우산 국이 신라에 병합되면서 부속섬 독도도 편입됐고 이후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 도 행정구역상 우리의 영토였다.

응모방법

그림을 예쁘게 색칠하고 그림 속 숨은 그림을 찾아 QR코드를 통해 참여해 주세요. 8월 31일까지 참여해주신 분 중 당첨자를 추첨해 소정의 기프티콘 을 보내드립니다. ※ 이름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문의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실(☎054-880-5144)

복호 당첨자

김○아(5352), 김○경(4850), 김○숙(5614), 이○성(9105), 이○남(1001)

* 축하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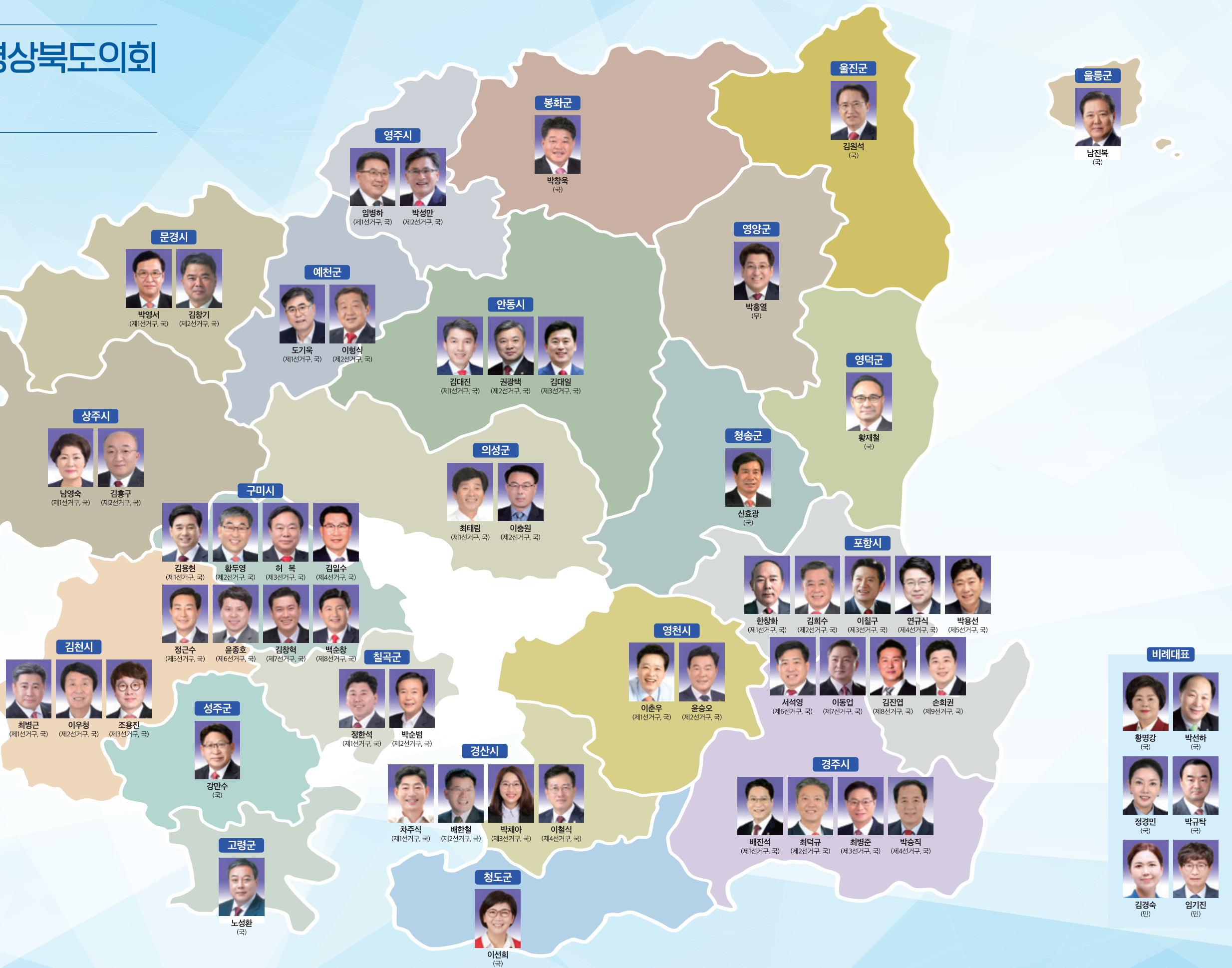


참여 QR코드



「경상북도 의회소식」
 구독 신청 QR코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현황



- | 정당표시**
- 국민의힘: 국
 - 더불어민주당: 민
 - 무소속: 무

비례대표

황명강 (국), 박선하 (국), 정경민 (국), 박규탁 (국), 김경숙 (민), 임기진 (민)